

UDC 한국어판의 개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vision of UDC Korean Edition

이 창 수**

Chang-Soo Lee

차 례

1. 서론	4. 한국어판의 개정방향
2. UDC의 현황과 관리	5. 결론
3. 표준판과 한국어판의 비교·분석	·참고문헌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2005년 영국의 BSI(British Standards Institution)에서 인쇄 형태로 출판된 UDC(Universal Decimal Classification)의 표준판과 1973년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KORSTIC, Korea Scientific & Technological Information Center)에서 출판된 UDC의 한국어판을 비교·분석하여 한국어판의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앞으로 개정될 한국어판은 표준판의 규모로 한국어 간략판과 MRF(Master Reference File)를 바탕으로 표준판의 체제에 따라 본표와 색인으로 된 인쇄판이 되어야하며, 국제적 보편성을 강화하고, 보조표를 통한 조합의 방식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키 워 드

국제십진분류법, 분류표, 준열거식 분류표

* 이 논문은 2009년도 경북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한 것임.
 **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Professor,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Kyungpook National Univ., csl@knu.ac.kr)
 • 논문접수일자: 2010년 3월 23일
 • 최종심사일자: 2010년 3월 31일
 • 게재확정일자: 2010년 4월 5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print form of UDC(Universal Decimal Classification) standard edition which was published by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in 2005 to Korean edition which was published by Korea Scientific & Technological Information Center in 1973, and to suggest the appropriate revision directions of future Korean edi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future Korean edition should be revised based on the Master Reference File and should be a print edition which is composed of systematic tables and alphabetical index from the standard edition. In addition, the future Korean edition needs to strengthen international universality and to extend synthetic method using its auxiliary tables.

KEYWORDS

Classification, Master Reference File, Semi-enumerative Classification, Universal Decimal Classification

1. 서론

UDC는 영어 명칭 Universal Decimal Classification의 약자로서 국제십진분류법으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UDC는 지식의 모든 분야를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도록 한다는 취지로 당시 십진식으로 보편성을 인정받고 있던 듀이십진분류법(DDC) 제5판(1894)을 바탕으로 하여 국제적인 시각에서 전개한 분류표이다. UDC는 부가기호와 다양한 보조표를 사용한 기호의 조합으로 다면적인 분류가 가능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서가배열과 서지분류는 물론 교환언어와 웹자원의 분류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UDC는 다국어분류표로서 완전판, 중간판,

간략판, 특정 주제판, 전자판 등의 형태로 한국어 포함 39개 이상의 다른 언어로 출판되었다. 유럽의 여러 나라와 프랑스어권의 아프리카 국가 등 29개 이상의 국가서지를 분류하는 데에도 사용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73년에 한국어 간략판(韓國科學技術情報센터 1973, 이하 UDCK로 약칭함)이 출판된 이후 전문도서관을 중심으로 다수의 도서관에서 사용되어 오다가 근래에는 관리 주체가 상실되어 한국 전력공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의 일부 전문도서관에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UDC를 사용하던 도서관들이 LCC, DDC, KDC 등으로 분류표를 변경한 주된 원인이 UDC 자체의 문제점보다는 한국어판이 1973년 이래 더 이상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UDC는 다면적인 분류가 가능하여 일면적인 분류만 가능한 열거식의 분류표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오늘날과 같은 복합적인 정보자료가 많이 입수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도서관계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UDC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도서관계에서 UDC를 새로이 도입하기 위해서는 UDC의 국제적인 관리 기구인 UDC 컨소시엄과의 관계를 정립한 후에 한국어판의 개정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러한 구체적인 한국어판의 개정작업에 앞서 개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먼저 UDC의 현황과 관리를 관련 문헌과 웹을 통하여 파악하고, 다양한 종류의 UDC판의 기본 정보원인 MRF(Master Reference File)를 바탕으로 2005년에 영국의 BSI(British Standards Institution)에서 인쇄 형태로 출판한 표준판(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2005, 이하 UDCs로 약칭함)을 기준으로 한국어판과 비교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판의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UDC의 현황과 관리

2.1 UDC의 현황

1895년에 창설된 IIB(Instiut International

de Bibliographie)에서 Otlet(Paul Otlet)와 La Fontaine(Henry La Fontaine)이 중심이 되어 1905-1907년에 UDC의 초판(Manuel du Répertoire Bibliographique Universel)을 불어로 출판한 이래 UDC는 계속 확장되어 1927-1933년에는 7만개 이상의 세목으로 구성된 제2판(Classification Décimale Universelle)이 프랑스에서 출판되었으며, 1934-1951년에는 약 14만개의 세목으로 구성된 제3판(Dezimal Klassifikation Deutsche Ausgabe)이 독일에서 출판되었다. 1943년부터 영국에서는 1936-1939년까지의 부분적으로 출판된 것을 수정, 보완하여 BSI에서 BS 1000 시리즈로 제4판(Universal Decimal Classification)을 분책으로 간행하기 시작하였다(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2005, xii). 완전판 이외에 각국에서는 중간판, 간략판 및 특정 주제판을 인쇄 또는 전자형태로 출판하여 왔다. Slavić이 2008년 9월까지 조사한 UDC의 39개 언어별 출판 현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Slavić 2005; Slavić 2008b).

<표 1>에서 Slavić의 조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이전의 조사(李昌洙 1989, 78-84; Slavić 2005)에서 한번이라도 언급된 판의 경우는 *로 표시하였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UDC의 완전판은 15개, 중간판은 23개, 간략판은 32개, 특정 주제판은 21개, 웹판은 5개, CD-ROM판은 5개, 파일형태로는 4개의 언어로 각각 출판되었다. 그 중에서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완전판을 출판하고

〈표 1〉 UDC의 언어별 출판 현황

언어	최근출판 연도	인쇄판				전자판		
		완전판	중간판/MRF	간략판	특정 주제판	WEB	CD-ROM	File
그루지아어	1998	-	-	1998	-	-	-	-
네덜란드어	2003	-	2003	*	*	-	-	-
노르웨이어	1965	-	-	*	1965	-	-	-
덴마크어	1995	-	-	1986-1995	*	-	-	-
독일어	2002	*	1978-1985	2002	*	-	-	-
라트비아어	1996	-	-	-	1996	-	-	-
러시아어	2008	2003-2008	*	2006	*	-	2001완전	1994완전
루마니아어	1997	*	1997	1995	*	-	-	-
리투아니아어	2006	-	2006	1991	-	-	-	1996MRF
마케도니아어	2006	-	1986	2006	-	-	-	-
베트남어	1984	-	-	1984	-	-	-	-
불가리아어	1985	-	1985	-	-	-	-	-
세르비아어	2004	*	2004	*	*	-	-	-
스웨덴어	2003	1983	-	1977-1981	*	2003-간략	-	-
스페인어	2004	*	2000	2004	*	-	2000MRF	-
슬로바키아어	2000	*	*	1981	-	-	2000MRF	-
슬로베니아어	1995	-	1973	1994-1995	-	2007-	-	1991간략
아이슬란드어	1953	-	-	-	1953	-	-	-
아제르바이잔어	?	-	-	1960?	-	-	-	-
알바니아어	1997	-	-	1993-1997	-	-	-	-
에스토니아어	1999	-	1999	-	-	-	-	-
영어	2006	*	2005-2006 표준판	2003	*	2001-MR F	-	2007MRF
우크라이나어	2008	-	2008	-	1999	-	-	-
이탈리아어	2000	1972-1985	1974	1987	*	2000간략	-	-
인도네시아어	?	-	-	-	1970s	-	-	-
일본어	2004	*	1994	*	*	-	2004MRF	-
중국어	1997	-	-	1997	-	-	-	-
체코어	2003	*	1994-1995	*	*	2003MRF	2003MRF	-
카탈로니아어	1982	-	1982	-	-	-	-	-
크로아티아어	2005-	*	2004	2003, 2004 갱신	-	-	-	-
키르기스어	1961	-	-	1961	-	-	-	-
터키어	1925	-	-	1925	-	-	-	-
포르투갈어	2007	*	2007	*	*	-	-	-
폴란드어	2006	1996	*	2006	*	-	-	-
프랑스어	2004	*	2004	2001	*	-	-	-
핀란드어	1991	-	-	1983-1991	-	-	-	-
한국어	1973	-	-	1973	-	-	-	-
헝가리어	2005	*	2005	*	*	-	-	-
히브리어	1969	-	-	1969	-	-	-	-
판별 언어 수		15	23	32	21	5	5	4

있는 것은 러시아어판 뿐이다. 21세기에도 출판되고 있는 중간판은 네덜란드어, 리투아니아어, 세르비아어, 스페인어, 영어, 우크라이나어, 크로아티아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헝가리어 등의 판이며, 간략판은 독일어, 러시아어, 마케도니아어, 스페인어, 영어, 크로아티아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등의 판이 있다. 웹판은 스웨덴어, 슬로베니아어, 영어, 이탈리아어, 체코어 등이 있으며, CD-ROM판은 스페인어, 슬로바키아어, 일본어, 체코어 등의 판으로 대부분 영어와 병행하여 발행되었다. MRF로 된 영어판을 비롯한 러시아어, 리투아니아어, 슬로베니아어 등의 파일 형태의 전자판도 발행된 바 있다.

언어별 출판 현황을 분석하여 볼 때 근래의 UDC 출판은 MRF를 바탕으로 한 중간판이 대체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어판의 경우 Slavić이 작성한 표에서는 중간판으로 제2판의 출판년도인 1993년으로 되어 있

나, 전술한 표준판 UDCs는 영어중간판의 제1판(BS 1000M: Part 1: 1985, Part 2: 1988)과 제2판(BS 1000M: Part 1: 1993, Part 2: 1993)을 계승하여 완전히 개정한 영어중간판 제3판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표 1>에서는 영어중간판의 최근 출판년도를 2005-2006년으로 수정하여 표기하였다.

주요 언어별 각판의 사용 상황별 국가수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UDC Consortium 2009b; Slavić 2008c, 221).

<표 2>와 <표 3>의 각 급(A, B, C)은 UDC의 사용 상황에 따라 나눈 것으로 ()안의 숫자는 2004-2006년에 Slavić이 조사하여 발표한 것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검증을 거쳐 UDCC의 홈페이지에 발표한 것이 ()밖의 숫자이다. 각 급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A : UDC가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사용되며 유력한 분류시스템인 국가
- B : UDC가 다소의 도서관유형에서 DDC와

<표 2> UDC 언어별 각판의 사용 상황별 국가수

언어	A	B	C	합계
영어	-	13	19(30)	32(43)
프랑스어	7	9	1	17
스페인어	2	3	10	15
러시아어	2	7	-	9
포르투갈어	4	3	-	7
독일어	1	1	1	3
기타 언어	18	6	6	30
합계	34	42	37(48)	113(124)

같은 다른 유력한 분류시스템과 나란히 사용되며, 잘 알려진 분류시스템으로서 문헌정보학과에서 거의 대부분 강의되고 있는 국가

C : UDC가 드물게 사용되는 국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어판이 가장 많은 32(43)개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A급

의 국가는 없으며, A급 국가로는 프랑스어판이 7개 국가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포르투갈어판이 4개 국가로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UDC의 대륙별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UDC Consortium 2009b; Slavić 2008c, 219-220).

〈표 3〉에서 밑줄 친 국가는 검증과정에서

〈표 3〉 UDC의 대륙별 사용 국가 현황

대륙		A	B	C
		22(20)	9(10)	10(11)
유럽	41	알바니아, 안도라,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몰도바, 몬테네그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노르웨이, 러시아 연방, 스웨덴, 스위스,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페로스 제도,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말타, 네덜란드, 영국, (키프로스)
아시아	24 (29)	4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 마카오	8 인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일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12(17) 방글라데시, 부탄,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한국, 스리랑카, 시리아, 타이완, 타지키스탄,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홍콩, 이란,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아프리카	24 (29)	8 알제리아, 앙고라, 부르키나파소, 콩고, 말리, 모잠비크, 세네갈, 토고	11 베냉, 카메룬, 가나, 기니아 비소,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모로코, 니제르, 남아프리카, 튀니지, 우간다	5(10) 카메룬, 케냐, 나이지리아, 수단, 탄자니아, (이집트, 에티오피아, 아이보리코스트, 말라위, 잠비아)
북·중미	9	-	3 캐나다, 쿠바, 코스타리카	6 바베이도스, 과테말라, 자메이카, 멕시코, 트리니다드토바고, 미국
남미	11	-	8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수리남, 우루과이	3 파라과이, 페루, 베네수엘라
호주 및 남태평양	4 (5)	-	3 호주,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뉴질랜드	1(2) 피지, (파푸아 뉴기니)
합계	113 (124)	34(32)	42(43)	37(49)

추가되거나 분리된 국가이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륙별로는 유럽 41개, 아시아 24(29)개, 아프리카 24(29)개, 북·중미 9개, 남미 11개, 호주 및 남태평양 4(5)개 국가 등 모두 113(124)개 국가에서 UDC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급 국가로는 유럽 22(20)개, 아시아 4개, 아프리카 8개 국가 등 모두 34(32)개 국가이다. B급 국가로는 유럽 9(10)개, 아시아 8개, 아프리카 11개, 북·중미 3개, 남미 8개, 호주 및 남태평양 3개 국가 등 모두 42(43)개 국가이다. C급 국가로는 유럽 10(11)개, 아시아 12(17)개, 아프리카 5(10)개, 북·중미 6개, 남미 3개, 호주 및 남태평양 1(2)개 국가 등 모두 37(49)개 국가이다. 한국은 C급 국가이다. UDC 사용의 지역별 분포를 분석하여 본 결과 동부 유럽과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옛 사회주의 국가에서 UDC의 사용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2009년 4월 현재 국가서지의 분류에 UDC를 사용하는 국가로는 유럽의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스페인, 포르투갈, 러시아 연방,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몰도바, 핀란드, 알바니아, 세르비아,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마케도니아, 루마니아 등 22개국이며, 아시아에서는 키르기스스탄, 아프리카에서는 튀니지, 모로코, 알제리, 세네갈, 카메룬, 마다가스카르 등 6개국으로 모두 29개 국가에 이른다(UDC Consortium 2009a).

2.2 UDC의 관리

UDC를 관리하는 기관의 변화를 살펴보면, 초창기의 IIB는 1931년 IID(Institut International de Documentation)로, 1937년에는 다시 FID(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 Documentation)로, 1988년에는 FID의 영어 명칭이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로 개칭되어 2000년까지 지속되었다. FID와 스페인의 AENOR(Asociación Española de Normalización), 네덜란드의 Bohn Stafleu Van Loghum, 영국의 BSI, 벨기에의 CLPCF(Centre de Lecture publique de la Communauté française de Belgique), 일본의 情報科学技術協会(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ssociation) 등이 주체가 되어 UDC의 국제적 관리기관으로 새로이 UDCC(UDC Consortium)를 창설함으로써 1992년 1월 1일부터 UDC의 소유권은 FID에서 UDCC로 인계되었다(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2005, vii).

UDCC는 집행위원회, 편집팀,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본부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왕립도서관에 두고 있다. UDCC 집행위원회는 2009년 10월 현재 영국인 의장과 포르투갈인 UDC 편집장 그리고 집행 회원기관으로 스페인의 AENOR, 영국의 BSI, 러시아의 VINITI(Vserossiisky Institut Nauchnoi i Tekhnicheskoi Informatsii), 벨기에의 Édi-

tions du CÉFAL(Comité Épiscopal France Amérique Latine), 체코 국립도서관 등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UDCC 집행 회원기관은 UDCC의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자기나라의 언어(스페인어, 영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체코어)로 된 UDC의 출판권을 가지고 있으며, 기타 출판사에서 출판권을 원할 경우는 UDCC 집행위원회의 라이선서 허가를 받은 후에 출판이 가능하다. UDCC는 UDC의 내용을 관리하고 개정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장과 6명의 편집진으로 구성된 편집팀, 21개국에서 25명의 정보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다(UDC Consortium 2009c).

UDCC는 1992년 이래 MRF 내용의 재검토와 개정과 증보를 통하여 분류표의 품질 관리를 하고 있다. 편집팀과 자문위원회의에 의해서 제안된 새로운 분류기호의 생성과 기존 분류기호의 개정과 폐기 사항은 토론을 거쳐 채택이 되면 MRF 데이터베이스를 추가 또는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UDC의 기본 데이터베이스인 MRF는 UDCC에 의해 공인된 버전으로서 6만7,000개 이상의 분류기호를 포함하고 있으며 매년 1월에 UDCC 집행회원기관과 라이선서를 획득한 출판사나 기타 라이선서 보유자를 위해서 사본이 발행된다. 매년 11월에는 「Extensions and Corrections to the UDC」를 통해서 그 해 갱신된 분류기호와 갱신을 위해서 제안된 분류기호를 책자 형태와 CD-ROM으로 공표한다.

3. 표준판과 한국어판의 비교 · 분석

3.1 기호의 조합과 보조표

3.1.1 기호의 조합

UDCs(3-4)(이하 UDCs와 UDCK 다음 괄호안의 숫자는 인용한 페이지를 나타냄)에서는 조합기호로서 상호 관련성이 없는 둘 이상의 주제를 조합하는 T1a 부가기호(+, /)와 상호 관련성이 있는 둘 이상의 주제를 조합하는 T1b 상관기호(:, [], ::)가 있다. 부가기호 ‘+’는 단순한 조합에, ‘/’는 연속된 분류기호의 조합에 사용한다. 상관기호 ‘:’는 상호 관련성이 있는 둘 이상의 주제가 대등하여 선후를 고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고, ‘::’는 고정적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 사용한다. ‘[]’는 둘이상의 분류기호를 부가기호(+, /)나 상관기호(:)로 조합하여 한 묶음으로 된 복합기호를 만들 때 사용하며, ‘[]’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복합기호는 다른 주분류기호 또는 보조분류기호와 조합된다. UDCK(6)에서는 상관기호 중 고정적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 사용하는 ‘::’가 없으며, ‘[]’는 기호를 조합할 경우 어느 한 편이 극히 종속적 부차적인 것으로 부출할 필요가 없을 때 사용하게 되어 있다.

3.1.2 보조표

UDCK에는 공동보조분류표로서 언어보조기호(a), 형식보조기호(b), 장소보조기호(c), 인종, 민족 및 국적보조기호(d), 시의 보조기호

(e), 문자, 번호(비십진)보조기호(f), 관점보조기호(g), 인의 보조기호(h) 등이 있다. UDCs에는 공통보조표로서 언어보조표(T1c), 형식보조표(T1d), 장소보조표(T1e), 민족·국적보조표(T1f), 시간보조표(T1g), UDC 이외의 기호법에 의한 세분(T1h), 일반특성보조표(T1k) 등이 있으며, T1k는 속성(-02), 재료(-03), 처리(-04), 사람(-05)보조표로 나누어져 있다. 이 중에서 언어, 형식, 장소, 민족·국적, 시간보조표는 다른 분류기호와 조합하여 사용할 뿐만 아니라 보조표 자체만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독립보조표이고 나머지는 의존 보조표로서 보조표 자체만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기호의 앞부분에는 조합하여 사용할 수 없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UDCs는 UDCK와 달리 조합기호인 부가기호(T1a)와 상관기호(T1b)를 공통보조표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보

조표의 표시기호가 다르고 관점보조표가 본표와 다른 보조표로의 재배치 또는 상관기호의 조합에 의해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완전히 삭제되었다. 그리고 T1k에 속성(-02), 재료(-03), 처리(-04) 보조표가 추가되었다.

1) 언어보조표

UDCs(5)의 언어보조표는 =...를 앞세워 주로 기호의 마지막에 조합되나, 자료를 언어별로 모으고자 할 경우는 기호의 앞쪽이나 중간에 조합되 구분이 필요하면 주분류기호는 :으로 연결한다. 그리고 여러 언어로 된 자료의 경우 언어보조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예) (02.053.2)=111:94 Children's books
 -in English-General history = 111
 (02.053.2)94 English language works
 -Children's books-General history
 53(035)=111=112,2=133,1 Handbook

〈표 4〉 보조표의 비교

UDCK	UDCs
a. 언어보조기호	T1a, Co-ordination, Addition
b. 형식보조기호	T1b, Relation, Subgrouping, Order-fixing
c. 장소보조기호	T1c, Common auxiliaries of language
d. 인종, 민족 및 국적보조기호	T1d, Common auxiliaries of form
e. 시의 보조기호	T1e, Common auxiliaries of place
f. 문자, 번호(비십진)보조기호	T1f, Common auxiliaries of ethnic grouping and nationality
g. 관점보조기호	T1g, Common auxiliaries of time
h. 인의 보조기호	T1h, Specification by non-UDC notation
	T1k, Common auxiliaries of general characteristics
	-02 Common auxiliaries of properties
	-03 Common auxiliaries of materials
	-04 Common auxiliaries of relations, processes and operations
	-05 Common auxiliaries of persons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of physics in English, German and French

UDCk(11)의 경우 조합의 방법은 언어별로 자료를 모으고자 할 때는 아래의 예와 같이 = 기호를 전후로 기입하여 주분류기호와 연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UDCs와 동일하다.

예) =957=08 한국어로 된 전집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UDCk(11)와 UDCs(5-16)의 언어보조표는 완전히 다른 체계를 이루고 있다. 〈표 5〉에서 UDCk의 경우 기호의 체계를 가늠해 보기 위해 =기호 다음

의 첫 숫자가 바뀌는 처음의 기호만을 나타낸 것이다. UDCk의 경우 DDC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요 언어의 구성만 백진식으로 전개하고 있음에 비하여 UDCs는 그야말로 국제적 보편성을 띠도록 새롭게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UDCs의 언어보조표가 어느 정도 국제적 보편성을 띠고 있는지를 비교해 보기 위하여 KDC 5판의 국어구분표를 기준으로 주요 언어의 기호를 비교하여 보면 〈표 6〉과 같다(한국도서관협회 분류위원회 편 2009, 49; Dewey

〈표 5〉 언어보조표의 비교

UDCk(a)	UDCs (T1c)
= 00 다국어	= 00 Multilingual
= 2 서양어 일반	= 1/=2 Indo-European languages
= 303 독일어	= 3 Caucasian & other languages, Basque
= 40 프랑스어	= 4 Afro-Asiatic, Nilo-Saharan, Congo-Kordofanian, Khoisan
= 50 이탈리아어	= 5 Ural-Altai, Japanese, Korean, Ainu, Palaeo-Siberian, Eskimo
= 60 스페인어	-Aleut, Dravidian, Sino-Tibetan
= 71 라틴어	= 6 Austro-Asiatic, Austronesian
= 81 스라브어 일반	= 7 Indo-Pacific, Australian
= 9 동양어, 기타의 언어	= 8 American Indian (Amerindian) languages
	= 9 Artificial languages

〈표 6〉 언어구분기호의 비교

언어	KDC5	DDC22	UDCk	UDCs
한국어	-1	-957	=957	=531
중국어	-2	-951	=951	=581
일본어	-3	-956	=956	=521
영어	-4	-21	=20	=111
독일어	-5	-31	=303	=112.2
프랑스어	-6	-41	=40	=133.1
스페인어	-7	-61	=60	=134.2
포르투갈어	-79	-69	=69	=134.3
이탈리아어	-8	-51	=50	=131.1
러시아어	-928	-9171	=82	=161.1

2003, 682-713; 韓國科學技術情報센터 1973, 11;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2005, 5-16).

이를 통해 볼 때 KDC5는 동양을 우선하여, DDC22는 서양을 우선하여 배정하고 있으며, UDCK는 DDC의 체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UDCs는 서양을 우선하되 기호의 자릿수에 있어서는 언어권별로 균등하게 배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이것은 국제적 보편성을 유지하려는 UDC의 기본 정신의 발휘와 백진식에 의한 기호의 유연성 부여로 인한 결과로 생각된다.

2) 형식보조표

UDCs(17)의 경우 연결부호로 (0...)를 사용하여 본표의 기호 뒤에 조합할 수 있음은 물론, 형식을 우선하여 그룹 짓거나 형식구분만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본표에 앞서 조합하거나 단독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경우에 따

라서는 본표의 기호 없이 보조표만의 조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UDCK(3)의 경우 기본적으로 보조표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본표의 기호 없이 보조표만의 조합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UDCs의 경우 (01)에 서지를 배정한 것과 (02)의 성격이 약간의 차이를 보일 뿐 UDCK와 큰 변화가 없다.

3) 장소보조표

UDCs(xix, 23)의 경우 연결부호로 (...)를 사용하여 본표의 기호 뒤에 조합할 수 있음은 물론, 지역을 우선하여 그룹 짓거나 지역구분만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본표에 앞서 조합하거나 단독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호의 중간에 조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UDCK의 경우는 장소보조표를 기호의 중간에 조합하는 방법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장소보조표의 대륙구분은 UDCK와 UDCs가 같으나, 장소보조표는 UDCK에서는

〈표 7〉 한국관련 장소보조표 분류기호 비교

UDCK		UDCs
(519) 한국	(519.17) 경상도	(519) 한국
(519.11) 서울특별시	(519.171) 경상북도	(519.3)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519.12) 부산직할시	(519.172) 경상남도	(519.3A/Z)
(519.13) 경기도	(519.18) 제주도	(519.5) 남한, 대한민국
(519.14) 강원도	(519.21) 황해도	(519.5A/Z)
(519.15) 충청도	(519.22) 평안도	
(519.151) 충청북도	(519.221) 평안남도	
(519.152) 충청남도	(519.222) 평안북도	
(519.16) 전라도	(519.23) 함경도	
(519.161) 전라북도	(519.231) 함경남도	
(519.162) 전라남도	(519.232) 함경북도	

8페이지에 불과했으나 UDCs에서는 107페이지로 대폭 확대되었다. 1993년부터 2007년까지 장소보조표에서 개정된 주요 분야로는 (2) Physiographic designation, (519.3) North Korea, (519.5) South Korea 등 133개 지역에 이르며, 완전판 수준의 보다 확장된 장소보조표(1/9)는 Extensions and Corrections to the UDC, No.27(Nov. 2005)의 부록으로 발행되었다(UDC Consortium 2007a).

한국과 관련된 장소보조표를 UDck(18)와 UDCs(55)에서 도 및 광역시, 특별시 이상의 지역만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UDck의 경우에는 지역구분의 순서가 서울을 기준으로 당시의 특별시와 직할시를 우선하여 배열하고, 남한지역을 북한지역보다 먼저, 서울에서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으로, 서에서 동으로 배열하고 있다. UDCs의 경우는 북한과 남한으로만 나누고 각기 지역명의 알파벳 순으로 배열하도록 하였다. UDCs에서의 한

국 관련 장소보조표의 기호 배정은 중국의 지역기호(510)의 마지막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국가적인 안배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UDck보다도 세분이 되지 않은 것은 보편성을 강조하는 UDC의 편집 방침에도 맞지 않은 처사로 판단되어 개정이 시급한 부분이다.

4) 민족·국적보조표

전술한 바와 같이 UDck(22)에서는 언어보조표가 서양어 중심으로 배정되어 있었으나 UDCs(130)에서는 언어의 계통에 따라 균형적으로 배정하여 국제적 보편성을 띠게 되었다. 언어보조표의 기호에 근거하여 전개되는 민족·국적보조표의 각 민족구분도 동일하게 변경되었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족·국적구분이 UDck에서는 (=2)에서 (=8)까지 서양어를 사용하는 민족을 배정한 것에 비하여 UDCs에

<표 8> 민족·국적보조표의 비교

UDck (d)	UDCs (T1f)
(=1) 국적 또는 거주지	(=111) English-speaking peoples
(=2) 백인종	(=112,2) German-speaking peoples
(=20) 앙글로삭슨민족	(=133,1) French-speaking, Gallic races and peoples
(=3) 게르만민족	(=16) Slavic races and peoples
(=4) 라틴민족	(=21) Indic races and peoples
(=8) 슬라브민족	(=41) Afro-Asiatic races and peoples
(=91) 인도게르만민족, 아리안 민족	(=521) Japanese-speaking peoples, Ethnically Japanese peoples
(=951) 한민족, 중국인	(=531) Korean-speaking peoples, Ethnically Korean peoples
(=956) 大和민족, 일본인	(=581) Chinese-speaking peoples, Ethnically Chinese peoples
(=957) 한민족, 한국인	(=62) Austronesians
	(=81/=82) North American(American Indian) peoples

서는 (=1) 한 곳에 서양어를 사용하는 민족을 모두 배열하고 나머지 (=2)에서 (=8)까지에 서양어를 사용하는 민족을 제외한 모든 민족을 골고루 안배하여 배정하고 있다. 언어구분에 영향을 받는 민족·국적구분 역시 UDCs에서는 서양 중심의 기호 배정에서 탈피하여 모든 민족을 골고루 안배하고 있다.

민족·국적구분표에서 특정지역과 관련되는 국민이나 주민의 구분은 UDck에서 (=1) ‘국적 또는 거주지’ 기호 아래에 소수점(.)을 찍고 해당 지역을 장소보조표에 따라 세분 하던 것을 UDCs에서는 소수점 대신에 콜론(:)으로 연결하여 세분하고 있다.

5) 시간보조표

자료의 내용이 시간적 특성을 지니고 있을 경우 연결기호 “...”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것으로 UDck(22-23)와 UDCs(131-137)를 첫째 자리만 비교하여 보면 <표 9>와 같다. UDck와 비교하여 볼 때 UDCs는 “6”에서 서기 이

외의 시의 셈법에 더하여 지질학적, 고고학적, 문화적 시대구분이 추가되었고 둘째자리 이상의 구분에서는 각 시간의 구분이 보다 세분화되었다.

6) 의존 보조표

전술한 바와 같이 UDCs에는 의존 보조표로서 UDC 이외의 기호법에 의한 세분(T1h)과 일반 특성보조표(T1k)가 있다. UDck의 경우 UDCs의 T1h에 해당하는 것으로 문자·번호 보조기호(f)가 있으며, T1k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인의 보조기호(h)가 있다. UDCs의 T1h의 경우 고유명사의 경우는 연결기호 없이 바로 해당문자 또는 그 약칭을 사용하고, 부호와 번호가 결합된 경우와 번호만으로 된 경우는 *를 앞세워 사용하는 데 비하여 UDck의 문자·번호 보조기호의 경우 번호가 추가될 때는 No.를 앞세운 다음 조합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 UDCs(139-151)의 T1k는 UDck에서의 인의 보조기호(-05) 이외에 ‘-02 속성보조표’, ‘-03 재

<표 9> 시간보조표의 비교

UDck (e)	UDCs (T1g)
“0/1” 시대, 세기	“0/2” Dates and ranges of time(AD) in conventional Christian (Gregorian) reckoning
“3/7” 여러 관점에서의 시의 구분	“3/7” Time divisions other than dates in Christian(Gregorian) reckoning
“3” 계절, 월, 주, 일	“3” Conventional time divisions and subdivisions: numbered, named etc.
“4” 시의 경과, 지속시간, 수명, 연령	“4” Duration, Time-span, Period, Term, Ages, age-groups
“5” 주기성; 어느 기간 중에 있어서 재발, 반복	“5” Periodicity, Frequency, Recurrence at specified intervals
“6” 서기 이외의 시의 셈법	“6” Geological, archaeological and cultural time divisions
“7” 시의 흐름 중에서의 진행	“7” Phenomena in time, Phenomenology of time

료보조표’, ‘-04 처리보조표’가 추가되어 있
는바 이들을 요약하면 <표 10>과 같다.

UDCs에서 추가된 <표 10>의 보조표들은
본표에 따라 분류가 된 대상물의 일반적인 속
성, 재료, 개념 간의 관계와 처리, 행위 그리
고 운영을 부차적으로 세분하고자 할 경우에
사용하는 보조표로서 단독 또는 조합기호의
첫머리에는 사용할 수 없다.

3.2 본표

UDCk와 UDCs의 주류는 표현의 구체성이
일부 다를 뿐 거의 변화가 없다. 그러나 강목
이하의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변화

가 있다. 여기서는 각류에 있어서 특징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을 목(目)단위 이상을 중심
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3.2.1 총류

총류의 강목에 있어서 UDCk와 UDCs 사이
에 차이가 많은 분야는 00과 04이다. 04는
UDCk의 경우 ‘소책자, 논설, 별쇄 등’을 위한
기호로 사용하였으나 UDCs에서는 형식보조
표의 (04)로 모으고 빈번호이다. 00은 UDCs
의 경우 004에 ‘컴퓨터과학’을, 005에 ‘경영
학’을, 006에 ‘표준화’를 재배치 또는 세분하
였다. 컴퓨터과학은 UDCk(253)에서 ‘681.3’
에 있던 것이 UDCs(162-170)에서는 ‘004’

<표 10> 속성, 재료, 처리 보조표

-02 속성보조표	-03 재료보조표	-04 처리보조표
-021 Properties of existence	-032 Naturally occurring mineral materials	-042/-042,82 Relations
-022,1 Properties of magnitude	-033 Manufactured mineral -based materials	-043/-046,67 Processes
-022,2 Properties of degree, quantity, number	-034 Metals	-047/-049,8 Operations
-022,3 Properties related to temporal values	-035 Material of mainly organic origin	
-022,4 Properties of dimension	-036 Macromolecular Materials, Rubbers and plastics	
-022,5 Properties of size	-037 Textiles, Fibres, Yarns, Fabrics, Cloth	
-023 Properties of shape	-039 Other materials	
-024 Properties of structure		
-025 Properties of arrangement		
-026 Properties of action and movement		
-027 Operational properties		
-028 Properties of style and presentation		
-029 Properties derived from other main classes		

로 재배치된 것이다. UDCs에서는 컴퓨터과학을 공학에 국한한 분야가 아닌 종합과학으로 보고 총류쪽으로 재배치하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함께 종합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경영학 분야는 UDck(29, 211-212)에서는 005 '조직체계의 연구, 분석, 총합 및 분류의 원리', 65 '관리기술', 651 '사무소의 조직과 운영'에 나누어져 있던 것을 UDCs(170-174)에서는 005에 'Management'로 통합하여 세분한 것이다. UDCs의 경우 경영학 일반은 005에, 기업경영, 관리 및 상업 조직은 658에 배치하고 있다. UDCs(174-176)의 006은 UDck(89)의 389 '도량형제도, 규격통일사업'에 있던 것으로, 제품, 운영, 중량, 크기, 시간의 표준화에 관련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3.2.2 종교

종교는 UDck(43-47)의 경우 기독교 위주(22/28)로 전개되어 있었으나 UDCs(197-225)

에서는 각 종교를 균형적으로 전개하였다.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UDck에서는 7개의 강구분에서 기독교를 세분하고,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를 하나의 강(29)에 배정하여 서구 중심으로 편중되었으나, UDCs에서는 종교별, 지역별 안배가 되어 국제적인 보편성을 지닌 분류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3.2.3 사회과학

UDck(48-49)에서는 인구학이 312에, 사회학이 301에 배정되었으나 UDCs(230-236)에서는 인구학을 314에, 사회학을 316에 인접하게 배정하고, 311에 과학으로서의 통계학 및 통계이론을 그대로 배정함으로써 31에 통계학(311), 인구학(314), 사회학(316)이 공존하게 되었다. 33 경제학 분야는 UDck(51-58)에서 빈번호인 332에 UDCs(241-268)에서는 333에 있던 토지 및 주택 그리고 지역 경제 관련 분야를 재배치하고, 335에 있던 사

<표 11> 종교 분야 비교

UDck	UDCs
2 종교, 신학	2 Religion, Theology
21 자연신학	21/29 Religious systems, Religions and faiths
22/28 그리스도교	21 Prehistoric and primitive religions
22 성서	22 Religions originating in the Far East
23 교리신학, 교양학, 신조	23 Religions originating in Indian sub-continent, Hindu religion in the broad sense
24 실천신학, 종교적 생활	24 Buddhism
25 사목신학(목회신학)	25 Religions of antiquity, Minor cults and religions
26 그리스도교회 일반	26 Judaism
27 그리스도교회사	27 Christianity, Christian churches and denominations
28 그리스도교회의 제파	28 Islam
29 일반종교학, 비교종교학, 그리스도교 이외의 각종의 종교	29 Modern spiritual movement

회주의 및 그 체제 관련 분야는 정치학으로 재배치하고 빈번호이며, 337에 있던 관세정책도 339아래로 재배치하고 빈번호이다. 338 '생산 경제, 생산, 기업경제 일반'과 339 '소비경제, 소득, 물자의 분배'도 338 '경제상황, 경제정책, 경제관리, 경제계획, 생산, 서비스, 가격'과 339 '무역, 상업, 국제경제관계, 세계경제'로 각각 재편성되었다. 34 법학 분야에서는 UDCK(59-72)과 비교할 때 UDCs(269-294)에서 346 '경제법'과 349 '법의 특수한 분야'를 추가하고 있다. 36 '사회복지, 구제, 보험, 사회운동'에서는 UDCK(80-83)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361-362에 있던 것이 364로, 363-367, 369에 있던 '사회개선운동 및 각종의 사회운동'이 365 '주거 욕구와 그 실현'과 366 '소비자 운동' 그리고 기타 관련 번호로 UDCs(309-318)에서는 재배치되었다. 37 교육학 분야에서는 UDCK(84-87)과 비교할 때 UDCs(318-322)에서 371 '교육조직과 제도, 학교제도'와 372 '취학전교육, 초기수업에 있어서 작업내용'이 373-378 아래의 각종 교육에 재배치되거나 특수보조표를 추가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UDCK(88-89)의 38 '상업, 운수, 교통' 분야는 완전히 재배치되어 UDCs에서는 빈번호로 남아 있다. UDCK의 상업 분야는 UDCs(174-176, 263-268, 684-685, 689-696)의 경제학 내로 재배치되었고, 통신 사업은 654로, 교통, 운수 및 우편 사업은 656으로, 표준화 관련 내용은 전술한 바와 같이 총류 내의 006으로 재배치되어 더 세분화

되었다. 39 '토속학, 풍속습관, 민속학' 분야에서는 UDCK(90)과 비교할 때 UDCs(130, 230)에서 396 '사회에 있어서의 여성의 지위, 부인운동'은 305에 재배치하고, 397 '유목민, 집시'는 보조표 1f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3.2.4 수학, 자연과학

UDCK(91)에서는 50 '수학 및 자연과학의 일반문제,' 501 '정밀과학에서의 일반문제,' 502 '박물학의 일반문제'로 전개되어 있던 것에서, UDCs(327-328)에서는 50과 501은 빈번호이며, 502는 '환경 및 그 보호'로 변경되었고, 504에 '환경에 대한 위협' 등으로 세분되어 있다. 51 수학이 UDCK(91-93)에서는 513 '기하학', 514 '삼각법', 515 '화법기하학, 투영법, 투시도법', 516 '해석기하학'으로 되어 있던 것이 UDCs(327-341)에서는 514-515에 집중적으로 기하학을 세분하고 있으며, 517 '해석학', 518 '수치계산법, 도표계산', 519 '순열, 조합, 확률론 등'으로 되어 있던 것이 517과 519에 해석학과 그 분과학으로 세분하고 있다. 52 '천문학, 측지학, 측시학' 분야의 경우 UDCK(93-94)에서의 522 '실지천문학, 천문관측'은 UDCs(176, 341-349)에서는 520에, 523 '일반천문학, 기술천문학, 우주론'에서 일반천문학은 52아래에, 우주론과 항성 관련은 524아래에 재배치하고, 523은 태양계로 변경하여 524에 있던 지구까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524는 별, 항성계와 우주론을 분류하도록 하여 527에 있던 '항해

천문학, 항공천문학'을 포괄하도록 하고 있다. 529에 있던 '측시학'은 006.95에 재배치하고 있다. 53 '물리학'에서는 UDck(100-102)의 경우 537 '전기학', 538 '자기학, 전자기학'으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UDCs(365-367)에서는 537에 합쳐서 나열하고 있다. 54 '화학'에서는 UDck(104-105)의 541 '이론화학, 일반화학'을 삭제하고 UDCs(378-392)의 544 '물리화학'에 재배치함으로써 이 분야의 발전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55 '지구과학, 지질학' 분야에서는 UDck(122)에서 551.48/.49에 있던 수문학(水文學)을 UDCs(430-431)에서는 556에 종합적으로 확대 세분하고 있다. 57 '생물과학'에서 UDck(129-131)에서의 571 '선사학'은 UDCs(434-443)의 902 '고고학'에 재배치하고, 573에는 '일반 및 이론 생물학'을, 574에 '공업생물학, 생물지리학' 대신에 '일반 생태학, 생물의 다양성'을, 578에 '생물학의 기술' 대신에 '바이러스학'을, 579에 '박물학적인 채집' 대신에 576.8에 있던 '미생물학'을 확대하여 재배치하고 있다.

3.2.5 응용과학, 의학, 공학, 농학

UDck(141)에서는 60에 '응용과학의 일반 문제'가 있던 것을 UDCs(465-466)에서는 6으로 옮기고, 60에는 '생명공학'을 전개하고 있다. 61 '의학'에서는 UDck(154)의 619에 있던 '비교병리학, 수의학'이 UDCs(453, 663)에서는 591.2와 636.09에 재배치되었다. 62 '공학'에서는 UDck(193-195)의 629.1에 있

던 '교통공학'이 UDCs(624-643)에서는 상위 번호인 629로 재배치하여 더 세분화되었다. 63 '농업'에서는 UDck(199-200)의 634.0에 있던 '임업, 삼림, 임산물'이 UDCs(643-645)에서는 630으로 재배치되어 산림십진분류법(International Union of Forest Research Organizations 1990; 2006)에 따라 세분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UDck(211-212)에서는 65 '관리기술', 651 '사무소의 조직과 운영'에 있던 것을 UDCs(170-174)에서는 005로 통합되었다. 66 '화학공업'에서는 UDck(238)의 668에 있던 '각종의 유기화학공업'이 UDCs(716-718, 741-745, 754-758)에서는 661.1과 665와 667 등의 관련 번호로 재배치하여 애매성을 배제하고 있다. 69 '건축공업'에서는 UDck(258-259)에서는 특수보조표의 기호로 62.02 '구조부분'에 있던 것을 UDCs(829-831)에서는 비어 있던 692 '건축구조부분과 요소'로 재배치하여 세분하였다.

3.2.6 미술, 사진, 음악, 오락, 스포츠

72 '건축학'에서는 UDck(268)에서 729 '건축장식'에 있던 것이 UDCs(841-842, 845)에서는 특수보조표의 기호인 72.04(7.04와 같이 세분한다)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각종 건축물에서 조합하여 쓸 수 있도록 하였다. 75 '회화, 채색미술'에서는 UDck(269)에서 753/759에 각종 주제화를 나열하거나 보조표의 기호인 75.04를 사용하던 것이 UDCs(841-842, 851)에서는 특수보조표의 기호인 75.04(7.04

와 같이 세분한다)만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각종 회화에서 조합하여 쓸 수 있도록 단일화 하였다. 76 ‘판화, 조판, 인쇄미술’에서는 UDCK(269)의 768에 있던 ‘기계적 조판’은 UDCs(687-688)에서는 655.3 ‘인쇄운영 및 기법, 인쇄공정’에 재배치되었고, 769 ‘판화, 예칭의 수집’은 UDCs(842, 851)에서는 특수보조표의 기호 7.074에 따라서 조합하여 76.074로 분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77 ‘사진’에서는 UDCK(273)의 779에 있던 ‘사진이나 영화의 수집’은 UDCs(179)에서는 025.177 ‘시청각 자료의 취급’에 재배치하였다. 78 ‘음악’에서는 UDCK(274)의 786/789에 나열되어 있던 ‘기악독주’는 UDCs(864-865)에서는 780.61/.66 ‘개별음악악기’(예: 바이올린 780.614.332)에 배정된 번호를 780.8 ‘개별악기를 위한 음악’의 분류기호에 상관기호(:)로 조합하여 분류하도록 함으로써 악기와 그 음악을 분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바이올린 독주’는 UDCK에서 787.1로 분류되고, UDCs에서는 780.8:780.614.332로 분류된다. 79 ‘오락, 유희, 게임, 스포츠’에서는 UDCK(275)의 791이 ‘대중오락, 연예, 흥행’이었던 것이 UDCs(867-870)에서는 791.1에서 791.6까지 영화를 상세히 배정하고 791.7에서 791.9까지는 기타 유희를 나열하고 있다.

3.2.7 언어 및 문학

UDCK(277-279)에서는 각국 언어를 본표의 802/809에 일일이 나열하던 것을 UDCs

(881-888)에서는 언어보조표의 ‘=’ 부호를 ‘.’으로 바꾸어서 811(언어)에 조합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801에 ‘작시법, 언어보조과학, 언어학의 출처’, 808에 ‘수사학, 언어의 효과적 사용’을 전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어’는 한국어 UDCK에서는 809.57로 본표상에 나열되어 있던 것을 UDCs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언어보조표의 변경으로 811아래 811.531로 분류된다. 문학의 경우도 UDCK(279-280)에서는 820/89에 단순히 나열하던 것을 UDCs(888-890)에서는 언어보조표의 ‘=’ 부호를 ‘.’으로 바꾸어서 821(개별 언어의 문학)에 조합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장소보조표에 따라 국적을 세분하여 조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UDCs에서는 ‘미국에서의 영문학’은 821.111(73), ‘영국에서의 영문학’은 821.111(410) 등으로 언어와 국적을 동시에 조합하여 분류할 수 있다.

3.2.8 지리, 전기 및 역사

UDCK(281)에서는 지역별 지리를 913/919에 특정지역의 지리를 나열하던 것을 UDCs(893-894)에서는 913 ‘지역지리’ 한 번호로 모아서 장소보조표에 따라 세분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한국지리’는 UDCK에서는 915.19로 본표 상에 나열되어 있던 것을 UDCs에서는 본표와 장소보조표의 조합으로 913(519)로 분류된다. UDCK(281-282)에서는 92 ‘전기, 개인에 관한 기록’, 929 ‘계보학, 가계, 가족家紋 등’으로 분리되어 있던 것을 UDCs(894

-895)에서는 929에 ‘전기 및 관련 연구’로 통합하였다. UDCK(282-284)에서는 역사 및 역사학의 배정에 있어서도 93/99 ‘역사, 역사학’에 넓게 나열하던 것을 UDCs(895-898)에서는 93/94 ‘역사’로 단순화하여 930에 역사학과 역사의 보조학을, 94에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모든 역사를 장소보조표, 시간보조표, 민족·국적보조표에 따라 조합하도록 함으로써 본표를 아주 간략화 하였다. 예를 들면 ‘20세기 미국사’는 한국어 간략판에서는 973.09로 본표상에 나열되어 있던 것을 표준판에서는 본표와 장소보조표 및 시간보조표의 조합으로 94(73)“19”로 분류된다.

4. 한국어판의 개정방향

4.1 보조표의 추가 및 삭제

UDC 한국어판의 개정시에 기호의 조합과 보조표와 관련하여 반영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합기호 중 상관기호 ‘::’의 추가가 있어야 하겠다. 상관기호 ‘::’는 상호 관련성이 있는 둘 이상의 주제가 선후를 고정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따라서 UDCK의 경우 ‘[]’는 기호를 조합할 경우 어느 한편이 극히 종속적 부차적인 것으로 부출할 필요가 없을 때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경우 상관기호 ‘::’로 그 기능을 수행 할 수 있으

로 한국어 개정판에서는 UDCs에서와 같이 ‘[]’는 둘이상의 분류기호를 부가기호(+, /)나 상관기호(:)로 조합하여 한 묶음으로 된 복합기호를 만들 때에만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UDCs의 일반특성(속성, 재료, 처리, 사람)보조표(Table 1k)에 속하는 것으로 UDCK에서는 인의 보조기호(h)밖에 없으므로 분류가 된 대상물의 일반적인 속성, 재료, 개념 간의 관계와 처리, 행위 그리고 운영을 부차적으로 세분화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한국어 개정판에서는 ‘-02 속성보조표’, ‘-03 재료보조표’, ‘-04 처리보조표’가 추가되어야 하겠다.

셋째, UDCK에서는 DDC와 마찬가지로 서양어 위주로 되어 있는 언어보조표와 민족·국적보조표를 한국어 개정판에서는 국제적인 보편성을 많이 반영한 UDCs에서의 전개 방식으로 변경이 되어야 하겠다. UDCK에서는 언어보조표가 서양어 중심으로 배정되어 있었으나 UDCs에서는 언어의 계통에 따라 균형적으로 배정하여 국제적 보편성을 띠게 되었다. 언어보조표의 기호에 근거하여 전개되는 민족·국적보조표의 각 민족구분도 동일하게 변경이 되었다. 언어구분이 UDCK에서는 =2에서 =8까지 서양어를 배정 것에 비하여 표준판에서는 =1 한 곳에 서양어를 모두 배열하고 나머지를 =2에서 =9까지에 서양어를 제외한 모든 언어를 골고루 안배하여 배정하고 있다. 언어구분에 영향을 받는 민족·국적구분 역시 UDCs에서는 서양 중심의 기호 배정에서 탈피하여 모든 민족을 골고루 안배하고 있다.

넷째, 한국어 개정판에서는 UDck이후의 지역구분의 변화사항을 반영하여 장소보조표의 대폭적인 확대가 있어야 하겠다.

다섯째, UDck(24-25)에서의 관점보조표는 문제가 어떠한 관점에서 다루어졌는가 또는 대상이 어떤 점에 착안하여 있는가를 구별하는 것으로 열람용 목록과 같은 공개목록에서는 이 관점기호를 가급적 사용 않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하더라도 적합한 주분류항목도 없고 특수보조분류도 없는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UDCs에서는 관점보조표의 기호를 본표와 다른 보조표로의 재배치 또는 상관기호의 조합에 의해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완전히 삭제하였는바 한국어 개정판에서도 관점보조표는 별도로 줄 필요가 없다 하겠다.

여섯째, UDCs에서는 KDC나 DDC의 특수주제구분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 기호를 사용하여 ‘와 같이 세분(subdivide as)’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 방법은 간명하게 주제구분을 안내하는 것으로 한국어 개정판에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겠다.

일곱째, 한국어 개정판에서는 UDCs와 마찬가지로 보조표를 다른 분류기호와 조합하여 사용할 뿐만 아니라 보조표 자체만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독립보조표의 개념을 도입하여 보조표 사용의 유연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UDCs(xix, 5-137)에는 독립보조표로서 언어(Table 1c), 형식(Table 1d), 장소(Table 1e), 민족·국적(Table 1f), 시간(Table 1g) 등의

보조표가 있다. 언어보조표는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133.1:641.5(083.1)의 예와 같이 콜론(:)으로 구분을 하여 기호의 앞부분에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형식, 장소 및 민족·국적보조표는 원괄호로, 시간보조표는 따옴표를 사용하여 보조기호를 기호로써 열고 닫음이 분명하여 다른 분류기호와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호조합에 있어서 앞부분, 중간부분, 뒷부분 어디에나 조합이 가능하며, 단독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4.2 본표의 구조 변화와 국제적인 보편성 반영

한국어 개정판에서 반영되어야 할 본표의 구조변화와 개정이 필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 문학, 지리 및 역사 분야에 있어서 기본 번호만 나열해 두고 언어보조표, 장소보조표, 시간보조표, 민족·국적보조표 등의 보조표에 따라 조합하여 분류하도록 함으로써 본표를 간략화 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UDck에서는 각국 언어를 본표의 802/809에 일일이 나열하던 것을 UDCs에서는 언어보조표의 ‘=’ 부호를 ‘.’으로 바꾸어서 811(언어)에 조합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문학의 경우도 UDck에서는 820/89에 단순히 나열하던 것을 UDCs에서는 언어보조표의 ‘=’ 부호를 ‘.’으로 바꾸어서 821(개별 언어의 문학)에 조합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장소보조표에 따라 국적을 세분하여 조

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UDck에서는 지역 별 지리를 913/919에 특정지역의 지리를 나열하던 것을 UDCs에서는 913 '지역지리' 한 번호로 모아서 장소보조표에 따라 세분하도록 하였다. UDck에서는 92 '전기, 개인에 관한 기록', 929 '계보학, 가계, 가족家紋 등'으로 분리되어 있던 것을 UDCs에서는 929에 '전기 및 관련 연구'로 통합하였다. UDck에서는 역사 및 역사학의 배정에 있어서도 93/99 '역사, 역사학'에 넓게 나열하던 것을 UDCs에서는 94 '일반 역사'로 단순화하여 94에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모든 역사를 장소보조표, 시간보조표, 민족·국적보조표에 따라 조합하도록 함으로써 본표를 아주 간략화 하였다.

둘째, 본표의 각 주제 분야에 있어서 국제적인 보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UDck에서는 종교 분야가 기독교위주로 전개되어 있었으나 UDCs에서는 각 종교를 균형적으로 전개하여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분류표가 되었다. 또한 언어보조표에 국제적인 보편성을 반영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언어보조표에 따라 전개되는 언어와 문학에 있어서도 자연히 국제적인 보편성이 부여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UDCs에서는 UDck과 비교하여 볼 때 총류에 컴퓨터과학 및 컴퓨터 공학, 경영관리, 표준화 관련 주제, 사회과학에 인문학 및 사회학, 상업·운수·교통 관련 주제, 환경과학 및 생명공학 분야를 비롯한 본표 전반에 걸쳐서 재배치되거나 새로운 전개가 상당수 이루어졌으므로 이러한 새 경향을 한국어 개정

판에서는 반영할 필요가 있다.

4.3 한국 관련 부분의 개정 및 적용

한국어 개정판에서 한국 관련 부분의 개정 방향 및 적용 방안을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관련 장소보조표의 개정은 2006년 8월 29일 UDC의 편집장(Maria Inês Cordeiro)의 요청으로 일본어식 표현이 많이 포함되고, 지역구분의 순서가 인접순의 원칙에 위배되며, 최근의 행정구역 변경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초안을 필자가 수정하여 2006년 9월 20일에 제출한 것이다. 필자가 제출할 때에는 일본어식 표현을 삭제하였으나 Extensions and Corrections to the UDC, No. 28(UDC Consortium 2006, 109-111)에 제시된 개정사항에는 그대로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번호에서는 관련이 없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고, 울릉도의 경우는 (519.514) 강원도와 (519.531) 경상북도에 이중으로 포함되어 있는 등의 오류가 있다. 당초 안에서는 독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필자가 제출한 수정안에서 (519.531) 경상북도에 독도를 포함하여 제출하였는데 개정사항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UDC 편집진이 제안한 초안과 필자의 수정안 그리고 개정이 완료되어 Extensions and Corrections to the UDC, No.28에 발표된 한국 관련 장소보조표의 기호와 한글로 번역한 지역명을 비교하여 보면 <표 12>와 같다.

2006년 개정사항의 경우는 북에서 남으로,

〈표 12〉 한국관련 장소보조표 분류기호 개정

UDC 편집진의 초안	필자의 수정안	E&C, No.28(Nov. 2006) 개정
(519) 한국	(519) 한국	(519) 한국
(519.3) 북한	(519.3) 북한	(519.3)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519.31) 북부지방	(519.31) 북부지방	(519.31) 북부지방
(519.311) 평안북도, 신의주	(519.311) 함경북도, 청진	(519.311) 함경북도, 청진
(519.312) 자강도, 강계	(519.312) 라선직할시	(519.312) 라선직할시
(519.313) 양강도, 혜산	(519.313) 함경남도, 함흥	(519.313) 함경남도, 함흥
(519.314) 함경북도, 청진	(519.314) 양강도, 혜산	(519.314) 양강도, 혜산
(519.315) 개성시(개성지구)	(519.315) 자강도, 강계	(519.315) 자강도, 강계
(519.316) 나진, 선봉시	(519.316) 평안북도, 신의주	(519.316) 평안북도, 신의주
(519.33) 남부지방	(519.317) 평안남도, 평성	(519.317) 평안남도, 평성
(519.331) 함경남도, 함흥	(519.33) 남부지방	(519.33) 남부지방
(519.332) 평안남도, 평성	(519.331) 평양특별시	(519.331) 평양특별시
(519.333) 평양특별시	(519.332) 남포특별시	(519.332) 남포특별시
(519.334) 남포시	(519.333) 황해북도, 사리원	(519.333) 황해북도, 사리원
(519.335) 황해남도, 해주	(519.334) 황해남도, 해주	(519.334) 황해남도, 해주
(519.336) 황해북도, 사리원	(519.335) 개성직할시	(519.335) 개성직할시
(519.337) 강원도, 원산	(519.336) 강원도, 원산	(519.336) 강원도, 원산
(519.5) 남한	(519.5) 남한	(519.5) 남한. 대한민국
(519.51) 북부지방	(519.51) 북부지방	(519.51) 북부지방
(519.511) 경기도, 수원	(519.511) 경기도, 수원	(519.511) 경기도, 수원
(519.512) 서울특별시	(519.512) 서울특별시	(519.512) 서울특별시
(519.513) 인천광역시	(519.513) 인천광역시	(519.513) 인천광역시
(519.514) 강원도, 춘천	(519.514) 강원도, 춘천	(519.514) 강원도, 춘천
(519.515) 충청북도, 청주	(519.515) 충청북도, 청주	(519.515) 충청북도, 청주
(519.516) 충청남도	(519.516) 충청남도	(519.516) 충청남도
(519.517) 대전광역시	(519.517) 대전광역시	(519.517) 대전광역시
(519.53) 남부지방	(519.53) 남부지방	(519.53) 남부지방
(519.531) 전라북도, 전주	(519.531) 경상북도	(519.531) 경상북도
(519.532) 경상남도, 창원	(519.532) 대구광역시	(519.532) 대구광역시
(519.533) 경상북도	(519.533) 경상남도, 창원	(519.533) 경상남도, 창원
(519.534) 대구광역시	(519.534) 울산광역시	(519.534) 울산광역시
(519.535) 울산광역시	(519.535) 부산광역시	(519.535) 부산광역시
(519.536) 부산광역시	(519.536) 전라북도, 전주	(519.536) 전라북도, 전주
(519.537) 전라남도,	(519.537) 전라남도, 무안	(519.537) 전라남도, 무안
(519.538) 광주광역시	(519.538) 광주광역시	(519.538) 광주광역시
(519.539) 제주도, 제주	(519.53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519.53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동에서 서의 순서로 북한지역과 남한지역을 각각 북부지방과 남부지방으로 구분하여 번호의 길이에 상관하지 않되 계층관계는 명확히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특별시와 직할시, 광역시 그리고 도청소재지를 인접 광역시에 두고 있는 충청남도과 경상북도를 제외한 각도에는 해당 도청소재지를 함께 나열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요 섬의 명칭도 포함주의 형식으로 나열하고 있다. 북한과 남한의 국호는 당초의 안과 필자의 수정안에서는 영어명칭만으로 되어 있으나 개정하여 발표할 때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을 번자한 명칭도 추가되어 있다.

둘째, 전술한 바와 같이 UDCK에서는 역사의 시대구분을 본표 상에 일일이 나열하던 것을 UDCs에서는 본표와 장소보조표 및 시간보조표의 조합으로 분류가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어판의 새로운 개정 시에는 한국사의 시대구분도 본표 상에 일일이 나열하지 않고 예를 들어 고려시대를 94(519) “0913/1392”와 같이 분류하는 것처럼 기호를 조합하여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야 한다.

4.4 한국어판 관리 주체 문제

UDCK는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에서 출판하여 관리하였으나, 지금은 한국어판을 개정하거나 유지관리 할 관리 주체가 없는 실정이다. UDC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우수한 분류표로서 우리나라 과

학기술 분야 도서관에서도 새로운 시각에서 사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UDC 한국어판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UDCC로부터 라이선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별도서관이나 개인이 라이선서 허가를 받아서 개정판을 내기에는 금전적,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 필자는 UDCK를 출판한 기관의 후신으로 국책연구 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한국어 개정판의 출판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한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UDCC로부터 라이선서 허가를 받아 한국어 개정판을 출판할 경우에 그 판은 UDCs의 규모는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 개정판은 표준판의 규모로 한국어 간략판과 MRF를 바탕으로 하되 한국 관련 항목의 추가 재전개를 가미하여 UDCs의 체제를 따라 본표와 색인으로 된 인쇄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장차 UDC의 한국어 CD-ROM판과 웹판도 출판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5. 결론

지금까지 UDC의 현황과 관리 상황을 파악하고 표준판과 한국어판의 비교·분석을 토대로 한국어 개정판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는바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합기호 중 상관기호 ‘::’의 추가와 ‘[]’의 기능을 복합기호를 만들 때에만 사용하

도록 한다. 일반특성보조표의 속성, 재료, 처리보조표가 추가되어야 하며, 서양어 위주로 되어 있는 언어보조표와 민족·국적보조표를 언어의 계통에 따라 균형적으로 배정하여 국제적 보편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역구분의 변화사항을 반영하여 장소보조표의 대폭적인 확대가 있어야 하며, 관점보조표는 별도로 줄 필요가 없다. 특수주제구분 ≒ 기호를 사용하여 ‘와 같이 세분(subdivide as)’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보조표를 다른 분류기호와 조합하여 사용할 뿐만 아니라 보조표 자체만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독립보조표의 개념을 도입하여 보조표 사용의 유연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언어, 문학, 지리 및 역사 분야에 있어서 기본번호만 나열해 두고 언어보조표, 장소보조표, 시간보조표, 민족·국적보조표 등의 보조표에 따라 조합하여 분류하도록 함으로써 본표를 간략화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표의 각 주제 분야에 있어서 국제적인 보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바, 기독교위주로 전개되어 있는 종교 분야를 균형적으로 전개하여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분류표가 되도록 해야 한다. 총류에 컴퓨터과학 및 컴퓨터 공학, 경영관리, 표준화 관련 주제, 사회과학에 인문학 및 사회학, 상업·운수·교통 관련 주제, 환경과학 및 생명공학 분야를 비롯한 본표 전반에 걸쳐서 재배치하거나 새로운 전개가 필요하다.

셋째, 한국 관련 장소보조표를 Extensions

and Corrections to the UDC, No.28(Nov. 2006)에 발표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새롭게 전개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국어판을 개정하거나 유지관리 할 관리 주체는 한국어 간략판의 출판과 연관이 있는 국책연구 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국어 개정판은 표준판의 규모로 한국어 간략판과 MRF를 바탕으로 하되 한국 관련 항목의 추가 재전개를 가미하여 표준판의 체제를 따라 본표와 색인으로 된 인쇄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하루 속히 UDC의 한국어판의 관리 주체가 선정되어 UDC의 한국어 표준판을 출판·보급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분야 자료 분류에 널리 사용되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李昌洙. 1989. 國際十進分類法の起源과發展過程. 『圖書館·情報學研究』, 1: 71-98.
- 이창수. 2008. UDC 표준판의 구조적 특성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3): 299-320.
- 韓國科學技術情報센터. 1973. 『國際十進分類法』. 韓國語簡略版. 서울: 韓國科學技術情報센터.
- 한국도서관협회 분류위원회 편. 2009. 『한국십진분류법, 제1권: 본표』. 제5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1961. *Universal Decimal Classification*, 3rd abridged English ed. (BS 1000A: 1961). London: BSI.
-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2005. *Universal Decimal Classification, Vol. 1: Systematic Tables*, Standard ed. London: BSI.
-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2006. *Universal Decimal Classification, Vol. 2: Alphabetical Index*, Standard ed. London: BSI.
-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2003. *Universal Decimal Classification*, Abridged Edition (DISC PD 1000:2003). London: BSI.
- Cordeiro, Maria Inês and Riesthuis, Gerhard J.A, 2006. "A New Editorial Support System for UDC," *Extensions and Corrections to the UDC*, 28: 17-22.
- Dewey, Melvil, 2003.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Vol. 1: Manual, Tables*, Ed. 22. Dublin, Ohio: OCLC.
- International Union of Forest Research Organizations, 1990. *Forest Decimal Classification*, Vienna: International Union of Forest Research Organizations.
- International Union of Forest Research Organizations, 2006. *Global Forest Decimal Classification*, Vienna: International Union of Forest Research Organizations.
- McIlwaine, I.C. 2007. *The Universal Decimal Classification : A Guide to Its Use*, Revised Version. Hague: UDC Consortium.
- Slavić, Aida, 2005. UDC Translations : a 2004 Survey Report and Bibliography. [cited 2008. 7. 14]. <http://dlist.sir.arizona.edu/649/01/udc_translations7.doc>.
- Slavić, Aida, 2008a, Bibliography of Last Reported Editions of the Universal Decimal Classification – UDC . [cited 2010. 1. 27]. <http://www.udcc.org/files/UDCeditions_bibliography.pdf>.
- Slavić, Aida, 2008b, Overview of Last Reported Editions of the Universal Decimal Classification (UDC) in 39 Languages. [cited 2010. 1. 27]. <http://www.udcc.org/files/editions_overview.pdf>.
- Slavić, Aida, 2008c. "Use of the Universal Decimal Classification : A World-Wide Survey," *Journal of Documentation*, 64(2): 211-228.

UDC Consortium, 2006. "Revised UDC Tables." *Extensions and Corrections to the UDC*, 28: 101-159.

UDC Consortium, 2007a. Major changes to the UDC since 1993. [cited 2010, 2, 5] <http://www.udcc.org/major_changes.htm>.

UDC Consortium, 2007b. "Revised UDC Tables." *Extensions and Corrections to the UDC*, 29: 95-157.

UDC Consortium, 2009a. Countries which use UDC in their national bibliographies. [cited 2010, 2, 2].

<<http://www.udcc.org/bibliogr.htm>>.

UDC Consortium, 2009b. Countries with UDC User. [cited 2010, 2, 2].

<<http://www.udcc.org/countries.htm>>.

UDC Consortium, 2009c. Members. [cited 2010, 2, 2].

<<http://www.udcc.org/members.htm>>.